

전남 국립의대 새 국면 순천대 공모 참여 촉각

김문수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
공모 절차 참여 필요성 강조
“절차 무시한 유치 기대 비현실적”

국립 전남 의대 설립과 관련, 전남도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대 공모 절차가 새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순천대의 공모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온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데 이어 다른 국회의원들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 의대 설립 지역과 대학을 결정해 정부에 추천하는 용역을 진행중인 주관사가 최근 공청회 과정에서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을 평가 방법이 없다”고 밝힌 이후 ‘공모에 참여해 50%의 선정 가능성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의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국립 전남의대 설립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대 의대 유치 전략 바뀌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대와 순천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직접 (신청서를) 내겠다며 지금처럼 (전남도의) 공모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순천대 의대 유치 선정 가능성 0%다’, ‘여러 조건에서 순천대가 유리하다. 참여해서 50% 가능성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전남도 공모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들어 “결정권자인 정부의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의대 유치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도 썼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동부권 국회의원들인 주철현(여수갑), 조계원(여수을),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대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한편, 전남도 주관 의대 공모 절차에 대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공정한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고민이 많다”고 했다. 그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부터 공모 방식의 경우 대통령께서 전남지사한테 추천하라고 했으니 절차를 밟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다. “중앙정부가 대통령 말을 따르지, 독자 신청한 사람(단체)을 해주겠다”고 언급하면서도,

그는 “하지만 공모를 통해 한 쪽만 선정, 추천하게 되면 국립 의대 설립 문제로 동서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현실적 방안을 고민하는 등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 필요성을 감안해 동·서부권 대학 병원 2개를 먼저 짓고 의대 문제의 경우 추후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의견을 강조한 바 있다.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김 의원의 입장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해 고무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문 의원은 줄곧 전남도 주관 공모 절차에 순천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의료 현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문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순천대가 공모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김문수 의원의 입장을 페이스북이나 언론 등으로 접했지만 구체적 사유 등을 직접 듣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진 연석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 의원에게 청문회 이후 자세한 입장을 듣고 판단해 봐야 한다”고 했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김 의원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의 ‘공모 불참은 의대 유치 기회를 0%로 만든다’는 데 대해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하는 쪽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데 힘을 실어야 하는 게 국회의원 역할이라고 본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향후 공모 참여를 위한 구체적 요건들이 나오면 순천대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지역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용역 수행기관인 AT커니 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용역기관)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3일 간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 의견 수렴을 위한 2차 도민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단일 의대 캠퍼스에 1개 부속 병원으로 운영할 지, 한 곳의 캠퍼스에 의대를 운영하고 2개 지역에 병원을 신설해 운영할 지 등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용역기관은 이후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 추천대학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재명 대표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T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85.40%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표 연임 성공 최고위원에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정봉주 탈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T에서 열린 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선됐다. 이로써 이 신임 대표는 연임에 성공하면서 대선을 위한 토대도 만들었다.

반면, 광주·전남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였던 민형배(광산을) 의원은 수도권과 서울에서 열세에 물리면서 끝내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관련기사 3편>

이날 최종 집계된 민주당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는 최종 85.4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민주당 대표 선거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이 후보와 경쟁했던 김두관 후보는 최종 득표율 12.12%를 기록했다.

또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것은 1995~2000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맡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18.23%)·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

언주(12.30%) 후보가 당선됐다. 기대를 모았던 민형배 의원은 최종 누적 득표율 9.05%에 머물며 최고위원 입성이 좌절됐다.

또 경선 기간 초반 선두를 유지했지만 ‘진명 팔이’ 비난 이후 득표율이 급속하게 떨어졌던 정봉주(11.70%) 후보도 최고위원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며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

광주 의료진·봉사단, 소매 물고 캄보디아로 ▶2면

꺾이지 않은 폭염 10일 더 이어진다 ▶6면

호남의 누정 원림 - 화순 물염정 ▶22면

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정당이 돼야 한다”며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한 결과로 차기 지도부를 최종 선출했다.

/오광록·김해나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GENERATION
윤조에센스 6세대

Sulwhasoo